III-3

인공치아 배열과 안면 심미

원광대학교 보철학교실 박 종 환

치아의 배열상태는 저작 발음등의 기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모의 심미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소수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총의치 제작시 활용되는 여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모의 심미성을 회복해 주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교합고경은 생리적 안정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위치는 무치악 상태를 오래 방치시킨 경우에는 원래의 교합고경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낮아진 생리적 안정위를 기준으로 교합고경을 결정하면, 얼굴전체에 대한 아랫얼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안면의 심미성을 해치게 된다. 또한 상악 전치의 전후방적 위치는 입술 주위 근육의 긴장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안면 전체의 심미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미적인 총의치 제작을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배열상태나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교합고경의 결정 및 인공치아 배열에 있어서 기능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굴 전체와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